

캡스톤디자인 주간 보고서

팀원	2017103958 김건희
주제	Graph Centrality를 이용한 음원차트에 따른 프로듀서와 아티스트의 영향력 분석 및 신곡 추천
기간	2022.10.29. ~ 2022.11.04.
진 행 내 용	<p>이번 주는 멜론에서는 신곡 데이터를 500개 밖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 벅스에서 다년간의 '댄스/팝', '랩/힙합', '인디' 분야 신곡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벅스를 크롤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계산해냈던 중심성 수치를 2019년은 20%, 2020년은 30%, 2021년은 50%의 비중으로 합산하여 최종 중심성 수치를 계산하고, 실제 신곡의 발매 이후 특정 기간의 인기 차트 순위를 확인하여 검증할 예정입니다.</p>

캡스톤디자인 주간 보고서

팀원	2017103958 김건희
주제	Graph Centrality를 이용한 음원차트에 따른 프로듀서와 아티스트의 영향력 분석 및 신곡 추천
기간	2022.11.05. ~ 2022.11.11.
진행 내용	<p>이번 주는 벅스에서 신곡 크롤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힙합 분야에 대해서 진행하였고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신곡 데이터를 수집 및 정제 하였습니다. 데이터의 양이 많아 정제에 시간이 꽤 들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영향력에 따른 실제 곡의 순위를 기간별로 나누어 확인 중에 있습니다. 힙합 분야가 끝난다면 다른 분야에도 적용하여 이를 확인 해볼 예정입니다.</p>

캡스톤디자인 주간 보고서

팀원	2017103958 김건희
주제	Graph Centrality를 이용한 음원차트에 따른 프로듀서와 아티스트의 영향력 분석 및 신곡 추천
기간	2022.11.12. ~ 2022.11.18.
진행 내용	<p>이번 주는 크롤링 했던 데이터들을 토대로 힙합 분야에서 계산한 영향력이 높은 아티스트나 프로듀서가 실제로 신곡을 냈을 때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영향력은 2019년 20%, 2020년 30%, 2021년 50%로 설정하였습니다.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곡들로 확인해보았고 아티스트는 실제로 대부분 영향력이 높았던 아티스트가 대부분 주간 차트에서 새롭게 차트인 할 수 있었고, 프로듀서 역시 아티스트보다는 덜하였지만 높은 영향력을 가진 프로듀서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후 주말간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연구를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p>

캡스톤디자인 면담 확인서

팀원	김건희		
주제	Graph Centrality를 이용한 음원차이에 따른 프로그래밍과 아리스츠 명		
면담일시	2022.11.2.	지도교수	한 치 근
면담내용	<p>오늘은 최종 발표와 접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발표를 진행한 뒤 연구진행은 어느정도 마무리하면 되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다만 발표 자료는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너무 스크립트 위주의 발표라 보는 사람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다고 이야기 해주셨고, 템플릿 역시 주제와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연구를 더 진행할 것이라면 인터뷰 매스 큐어에 적합한 중심성을 찾아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p>		



각 분석!
신곡추천

캡스톤디자인 주간 보고서

팀원	2017103958 김건희
주제	Graph Centrality를 이용한 음원차트에 따른 프로듀서와 아티스트의 영향력 분석 및 신곡 추천
기간	2022.11.19. ~ 2022.11.25.
진 행 내 용	<p>이번 주는 인디, 댄스 분야에 대한 분석까지 마친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직접 찾아 읽고 피드백을 받았으며 발표를 위한 ppt를 잘 준비하라는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주말간 ppt를 잘 준비하여 다음 주 면담에서 피드백 받을 예정입니다.</p>